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4주일
제29권 17호(나해) 2009 · 3 · 22

[묵상]



“아들을
받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요한 3,18)

무르익는 은총과 회개의 사순시기
4주일을 맞이하여 그 절반이 넘어간다.
시작이 반이라면 반을 넘었으니
이제 그 절정을 향하여 깃발을 올린다.
“래따레”(laetare),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기뻐 즐거워하여라.”
오늘 주일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 옛날 바빌론 강기슭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짓던 그들이
페르시아 키루스 왕의 칙령을 받들어
귀양살이를 풀고 고향으로 향한 기쁨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하여
그분의 피에 죄를 씻고 구속된 기쁨이며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기쁨이다.
이제는 어둠보다 빛을 사랑하는 아들딸이 되어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빛으로 나아가
하느님 하신 일을 온 만방에 드러내려 가자.(大)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오후	9:00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들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오전 오후 오후	2:00 10:00 8:00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저녁 미사후 오전 오후 오후	9:30 미사후 10:00 8:00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M. E. Sharing (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오후 오후	9:30 7:00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매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 (2째주)	오후 오후 오후	6:00 5:00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오후 오전 오전 오후 오후 오후	 9:00 1:00 9:00 9:00 1:00 1:00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성세근 요셉, 김소천 마리아, 엄은섭 도로테오
특전 미사	(생)김봉길 바오로와 재희 모니카 가정, 방세혁 분도, 방영화 요세피나, 정케빈 요셉,
주 일 낮 미사	(연)이금순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이상현 베드로,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이영자 마리아, 이현호 요한, 박옥순 모데스타, 이인순, 김소천 마리아, 차정진 마리아
	(생)오진 베드로, 박순자 안젤라, 최금옥 말찌나, 윤희동 안토니오와 남열 세라피나 가정, 박홍룡 요셉 가정, 차보영 아멜라 가정, 한중현, 이대영과 명자 로사, 모로 마리아, 준희 스테파노, 김태호 마이클, 최조앤 가브리엘라, 조옥중 사도요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역대기 하권(2 Chronicles) 36,14-16,19-23
화답송	◎당신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구원하소서. <전례성가 66, 사순 제4주일 나해> ○바빌론 강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졌노라. 언덕의 수양버들 나뭇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노라.◎ ○우리를 잡아갔던 그 사람들이, 노래를 거기서 부르라 하고, 우리를 괴롭히던 그 사람들이, 신명을 내어보라 조르면서, 시온의 노래를 한가락 들려달라 하였도다.◎ ○우리 어찌 야훼님 노래를 남의 나라 땅에서 부를까 보나. 내 만일 예루살렘 너를 잊는다 하면, 내 오른손 그 솜씨도 잊혀지거라.◎ ○내 만일 예루살렘 너를 생각 않는다면, 으뜸가는 기쁨으로 내 삼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거라.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거라.◎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 2,4-10
복음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환호송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도다.◎
복 음	요한(John) 3,14-21
영성체송	주님께서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이르셨다. 가서 씻고 보아라. 그리고 하느님을 믿어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49	149
봉헌	361	269,178
성체	368	307,295
파견	151	103

25.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사도 5,29) “사람은 누구나 위에서 다스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권위란 있을 수 없고, 현재의 권위들도 하느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에 맞서는 자는 하느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고, 그렇게 거스르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사실 지배자들이란 악행을 할 때에나 두렵지 선행을 할 때에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대는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권위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로마 13,1-3)

▶ 인류애의 구현

오늘날 인류 사회는 물질문명의 발달로 풍요로움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인공위성과 언론 매체, 교통수단의 발달로 거리감이나 시간 개념이 줄어들어 ‘지구촌 가족’이라는 말이 그리 낯설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국제 관계가 밀접해지고 있다. 그러나 빈곤 국가의 국민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으며, 국가 간에는 인종 분쟁, 무역 분쟁, 군비 경쟁, 종교 분쟁 등 끊임없는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 평등하여야 할 자리에 불평등이 자리 잡고, 균등한 분배의 자리에 독점이 파고들어 인류 공존과 평화를 위협하고, 나아가 인류 공동체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국가들을 돕고 군비 축소와 전쟁 억제를 위하여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힘을 모아야 한다.

▶ 세상의 빛과 소금

“현대인, 특히 가난하고 고통 받는 모든 사람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는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입니다.”(사목현장, 1항)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야고 2,17 참조)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며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마태 5,13-16참조) 그럼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희망을 안겨 주는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인이 되고, 새로운 세상을 열망하는 선의의 모든 사람과 협력하여 하느님 나라의 정의를 구현하는 사회인이자 세계인이 될 것이다.

▶ 종합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일원이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형제애를 키워 가도록 노력하며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데 힘써야 한다. 또한 인류애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존을 위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망하는 선의의 모든 사람과 협력하여야 한다.

우리 자신부터 지역 간, 계층 간, 성별 간, 종파 간의 편견을 버리고, 부정과 불의를 부추기는 어떠한 유혹도 단호히 거부할 것을 결심해야 한다. (◆CBCK 제공 - 계속)

십자가와 못 그리고 진주조개

얼마 전 사무실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일하시는 형제님들에게 맡기고 벽에 걸린 십자가와 몇 가지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사를 대충 끝내 놓고 가장 넓은 벽 중앙에 십자가를 달았습니다. 십자가를 벽에 고정하기 위해 필요한 건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못. 그것도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벽과 십자가,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못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라 하고 벽을 우리의 요새요 피난처인 하느님이라고 할 때 과연 못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것은 하느님과 날 연결시켜주는 믿음이었습니다. 튼튼한 못이 십자가를 벽에 단단히 고정시키듯이 하느님께 대한 나의 믿음이 깊고 튼튼할수록 십자가인 나는 어떤 바람에도 끄떡없이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세상도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 혹시 조개 중에 가장 값진 조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진주조개입니다. 그건 바로 조개 안에 있는 진주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진주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고통과 시련,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선 조개에게 진주가 될 수 있는 불순물인 핵을 집어넣습니다. 신발에 모래가 들어간 경험이 있는 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모래 하나 때문에 걷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를, 우리는 얼른 신발을 털고 다시 신습니다. 조개도 마찬가지로겠지요. 부드러운 자신의 살에 갑자기 들어

온 불순물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그럴수록 불순물은 없어지기는 커녕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 이 진주조개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어부입니다. 어부는 몇 년이 흐른 뒤에 조개를 건져 올립니다. 그동안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한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조개를 열고 그 안에 숨어있는 진주를 꺼냅니다. “아! 참 아름답구나! 그동안 수고했다.” 어부는 환한 얼굴로 아름답게 빛나는 진주를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진주조개와 어부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진주조개는 우리 자신이요, 어부는 하느님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총과 사랑에 비해 내가 드린 것이 너무도 미약하기에 고개를 숙이고 하느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거기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진주를 꺼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네가 세상에서 살면서 견뎌내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들이 오늘 나에게 선물한 이 아름다운 진주가 커져가는 과정이었다. 네가 나에게 이런 선물을 하였으니 너는 이제 내가 준비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거라”하시지 않을까요?

하느님은 세상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있는 그대로 펼쳐지는 시기가 바로 사순절이요, 은혜로운 회개의 순간임을 새기며 오늘 복음을 통해 부활을 향한 새로운 마음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장광재 요아킴 신부 | 상설고해사목부

이번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지혜 수산나	정미영 미카엘라	이호미 엘리사벳
제1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이영석 크리스토폴
제2독서자	김정은 젬마	박혜경 레나타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2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레 테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김교복 레오	유철희 마오로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황지영 안젤라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사순시기 †

사순 제4주일입니다.

"좋은 신 주님, 제가 가는 곳마다 당신의 향기를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저를 도우소서. 저의 존재를 온전
히 소유하시고, 저의 존재에 온전히 스며드시어 저의 삶이
당신 빛을 드러내는 반사경이 되게 하소서. 저를 통해 빛
나시고, 저와 함께 머무르소서. 그리하여 제가 만나는 모
든 영혼들이 제 안에서 당신의 현존을 느끼게 되리니. 오,
주님 그들은 제가 아니라 당신을 우러르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십자가의 신비로' 중에서 뉴먼 추기경)

◆ 사순 피정

- 사도 바오로 서간 통독 : 24일(화) 오후 7시30분, 4일
째 통독으로 끝납니다. 이번 피정에 참여한 형제자매들
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특강 '살아있는 신앙생활' : 3월27일(금) 오후 7시30분
강사 : 김정희 루치아 수녀(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 전 신자 십자가의 길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 사순 제4주일은 특강입니다.
- 사순 제5주일 금요일(4월3일) : P.V. 구역

◆ 백삼위 본당 사순 판공성사 : 4월1일(수)

- 오후 7시30분 : 참회예절
(주일학교는 강당에서 합니다.)
- 오후 8시부터 : 고해성사
- 어르신을 위한 판공성사 : 3월29일 주일과 4월5일 주일
에 미리 드립니다.

◆ 사순절 희생 애공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사순절 희생봉투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4월9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남가주 합동판공성사로 평일 저녁미사 시간 일시 변경

- 3월26일(목) : 오전 9시
- 4월1일(수) : 오전 9시
- 4월2일(목) : 오전 9시

◆ LA 대교구 사목지침에 따른 성체성형 분배자 정기교육

- 일시 : 3월29(주일) 오후 1시, 본당 성전
- 교육대상 : 전례부원, 성체성형 분배봉사자(환자방문
봉성체 포함), 독서자, 복사
- 교육이수자 : LA대교구 발행 Certificate을 받게됩니다.
- 문의 : 전례연구위원장 김정웅 요한 ☎(310)720-8240

◆ 부활맞이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부활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교실, 화장실, 친교장, 정원,
축구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청소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일시 : 4월5일(주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 후
- 청소 담당구역 : 소공동체 구역장/반장, 계시관안내 참조

◆ 견진성사 교육 일정

- 오는 4월26일(주일) 성인신자들을 대상으로 견진성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견진반기를 원하는 세례신자들은 사무실
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시오.
- 주례 : Bishop Alexander Salazar (San Pedro Region)
- 교육일정 : 4월21일(화)~24일(금) 오후 7:30~9:30
- 문의 : 종교교육분과 최재은 베드로 ☎694-4585

◆ 남가주 M.E. 제63차 첫주말

- 일시 : 5월1일(금)~3일(주일)
- 장소 : 마리아 & 요셉 피정센터(P.V.)
- 신청 : 백삼위 대표부부 최사비노 & 안젤라 ☎350-4185

◆ 상장예식서(한글-영어 합본) 발간

가톨릭 연도와 장례예절을 책 한권으로 어려움 없이 치를 수
있는 '한-영 상장예식서' 판매중. 권당 \$15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3월22일(주일) : 토런스 서 2반(북어국 \$3)
- 3월29일(주일) : 토런스 남 2/3반(콩나물비빔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덕희	권진열	권태만	김광자	김 용	김원호
	김 은	김재영	김정엽	김정웅	김진숙	김택수
	박음전	송기철	엄혜은	오명섭	오태환	우영주
	유철희	유태현	육근주	육재민	이경태	이귀란
	이귀분	이근태	이영숙	이인두	이일길	이재정
	장영우	정규숙	정인식	주재옥	천광락	최이원
	황지영	황철수	한길선례	송마이클		
	합계 : \$4,375					
	미사헌금 : \$2,974.75					

성전헌금	권진열	권태만	김광자	김 용	김원호	김정엽
	김택수	엄혜은	오태환	우영주	유철희	육재민
	이경태	이근태	이영숙	이재정	장영우	정규숙
	정인식	최이원	황지영	한길선례		
합계 : \$3,300						
감사헌금 : 채승희 권미자 이재용						

◆ 백삼위 신심단체 '1인1단체 가입' 캠페인

2009년 올해는 본당의 신심단체 활성화 및 회원 가입 확대
대의 해입니다. 아직 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형제 자매님들
은 모두 참여하여 본당 발전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분 전화(콜링)카드 판매

- 유효기간, 연결수수료 등이 없는 가장 저렴한 전화카드
- 한국 통화 1분에 2.7센트
- 값: \$20(사부실)

◆ 주일학교 / 한국학교 소식 ◆

◆ 전진성사

- 대상: 10~12학년
- 리허설: 5월8일(금) 오후 7시30분~9시
- Reflection: 5월 14일(목) 오후 7시
- 전진성사 일시: 5월15일(금) 오후 7시
(전진대상자와 대부분은 3일간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 주례: Sartoris 주교 * 장소: St. Margaret Mary 본당
- 신청: 3월29일(주일)까지 *신청비: \$10

남가주 소식

◆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봉헌 및 봉헌 갱신식

- 일시: 3월25(수)오후 7시, LA 성 바실 성당
- 주례: 김재섭 요한마리아 비안네 신부
- 주최: 파티마 세계 사도직(푸른군대) 서부 평의회

◆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모안토니 신부 환송 감사 미사

LA한인들과 청소년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사목하신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모 안토니 신부님께서 새 임지로 떠나
십니다. 환송 감사 미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3월28일(토) 오후 7시
- 장소: LA 성 그레고리 한인천주교회 ☎(213)389-4612

◆ 성유 축성 미사(Chrism Mass)

- 일시: 4월6일(월)오후 7시
- 장소: LA주교좌 성당(555 W. Temple St. LA)

◆ 2010학년도 한국6개대학 공동입학설명회

- 일시: 4월2일(목)오후 6시
- 장소: LA한국교육원 강당 ☎(213)386-3112 ex.205
- 주최: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 대상: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수험생 및 학부모
- 내용: 재외국민 전형, 글로벌 전형, 특기자 전형 등

이번 주 단체 모임

3월 사목상임위원회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	--

소공동체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지마태오 & 안젤라 972-8292 3/20(금) 오후 7시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한요아킴 & 안나 530-7702 3/21(토) 오후 7시
	3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218-7824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782-1025 3/20(금)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티리아 782-8549	1	박정애 데레사 618-8499	박인식 토마스 953-9597 3/22(주일) 오후 5시
	2	이크리스 아가톤 619-7763	신알베르토 424-558-4223 3/21(토) 오후 6시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이기숙 엘리사벳 318-5079 3/10(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이석진 가브리엘 326-5867 3/20(금) 오후 7시30분
	2	박희자 마리아 791-3703	안혜진 세레나 325-6982 3/11(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강은진 켄마 214-2290	이정아 리디아 (213)200-9432 3/13(금) 오후 7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황지영 안젤라 782-0844 3/6(금) 오후 7시, 강당
	3	대건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율리아 365-4722	정정숙 율리아 365-4722 3/13(금) 오후 7시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유영균 우르바노 985-2882 3/7(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박종선 리비나 748-7323 3/13(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국세찬 세바스찬 541-7644 3/13(금) 오후 7시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박옥진 세실리아 377-0436 3/13(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오현희 골롬바 265-0793 3/12(목) 오전 10시, 성당

〈사도 바오로의 해 특집: 바오로 서간과 신학사상〉

◇ **바오로 서간 필사 순서** : 테살로니카 1서, 테살로니카 2서, 코린토 1서, 코린토 2서, 갈라티아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로마서, 에페소서, 콜로새서, 티모테오 1서, 티모테오 2서, 티토서

◎ 로마서 (1) - 사람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 ◎

로마서는 바오로 서간 13권 가운데서 가장 길고, 내용도 풍부하며, 사도 바오로의 신학사상이 가장 짜임새 있게 담겨있다. 그래서 바오로의 서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간이다. 로마서는 대략 인간의 죄와 하느님의 진노, 하느님의 의로운 심판, 그리고 인간은 율법 실천이 아닌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됨을 가르치고 있다.

◇ **로마 공동체** : 지금까지 살펴본 바오로 서간들은 모두 바오로 사도가 직접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 공동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로마는 바오로 사도가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다. 더욱이 바오로가 로마서를 썼을 때 로마에는 이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형성돼 있었고,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로마 1,8)는 바오로의 인사말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로마 교회를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로마에는 언제부터 신자 공동체가 형성됐을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강림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신자가 된 사람이 그날 하루만 3천명이 됐다고 하는데 그중에는 로마에서 온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들이 돌아가서 신자 공동체를 이뤘을 가능성이 크다.

로마의 역사에 관한 한 기록에 따르면, 클라우디우스 황제(재위 41~54)는 49년에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을 추방했다. 이들이 끊임없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이 소란은 예수를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믿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 간의 소란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한다. 따라서 로마에는 적어도 바오로 사도가 선교 여행을 시작할 당시에 이미 그리스도인 신자 공동체가 있었을 것이다. 로마 교회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었고, 바오로 사도가 편지를 써 보냈을 때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문제로 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 **집필 배경과 시기 및 장소** : 바오로 사도는 어떤 동기에서 로마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간을 썼을까? 로마는 당시 제국의 수도였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부하는 바오로는 이방인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로마에는 이미 신자들의 공동체 곧 교회가 형성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오로는 로마 교회를 방문해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복음선포 활동상을 알리고 서로 믿음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격려를 받고자 생각했다. 나아가 제국의 수도 서쪽 변방 지역인 스페인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 여정에 로마 신자들의 지원도 받고 싶었다. 하지만 바오로가 편지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런 계획은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다. “나는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을 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든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빌고 있습니다.”(로마 1,10)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 했지만 여러 번이나 좌절되고 말았습니다.”(로마 15,22) 결국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 나누고 싶었던 자신의 생각을 편지로 써서 로마 신자들에게 보내게 된 것이다. 이 편지에 당연히 자신이 전해들은 로마 교회의 문제, 즉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계 그리스도인 사이의 갈등과 관련해 충고 또는 권고하는 내용도 덧붙이게 된다.

학자들은 로마서에서 바오로가 밝힌 내용과 그 밖에 바오로의 서간 등을 토대로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를 코린토에서 썼을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 로마서 16장 1절이 말하는 ‘켄크레에 교회’의 ‘켄크레에’는 코린토에 있는 항구 이름이며, 16장 23절에 등장하는 ‘가이오스’는 바오로가 코린토에서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이다.(1코린 1,14 참조) 바오로 사도가 바로 이 ‘가이오스’의 집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집필했을 것이다. 바오로가 제3차 선교여행(53~58)을 마치면서 코린토에서 약 3개월 정도 머물렀었는데(사도 20,3 참조), 이때 로마서를 집필했으며, 집필 시기는 대략 57~58년쯤으로 추정된다.

[◆이창훈 기자]